

밤낮 없이 우는 매미 밤잠 설친다

소음 공해 수준 고통에 민원 잇따라 접수 지자체 “병해충 해당 안돼 방역도 못해”

가로수와 나무 등에 붙어 우렁차게 울어대는 매미 소음이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다.

가을 문턱에 들어섰다는 입추가 한참 지났지만, 한 낮 뜨거운 열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소음공해에 가까운 매미 울음을 부추기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조성된 나무숲은 여러 마리 매미가 달라 붙어 자정까지 울어대는 통에,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18일 광주지역 일선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매미 소음으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최

근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연일 지속되면서 매미들이 짹짹 울기 위해 극성맞게 울어댄다는 내용이다.

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 측은 입주민의 매미 소음 불편 사항을 전달받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역을 문의하기 위해 민원까지 제기했다.

매미 울음소리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소음측정기로 측정 시 공사장 소음 65데시벨보다 높은 72에서 최고 78 데시벨 수준이다. 이는, 집안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 내는 소리와 동일하고, 알람시계와 도로변 자동차 소리보다 높거나 비슷한 소음이다.

매미의 우렁찬 소리는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매미는 대개 밤엔 울지 않지만, 가로등과 상점 간판·아파트와 주택가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 때문에 밤 낮 없이 울어댄다.

더욱이, 최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 매미 소리가 유독 심한 것은 매미의 체온이 올라가 밤에도 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광산구에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주변 묘목과 방충망 등에 매미가 달라붙어 온종일 울어대는 통에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다”며 “관리소 측과 협의해 방역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입시 준비생들도 참기 힘든 매미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능시험을 앞둔 한 수험생은 “밤 낮 가리지 않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괴롭다”며 “열대야 속에도 베란다

창문과 방문을 닫고 책을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매미 소음문제를 고심 중이지만 마땅한 대처 방법은 없는 상태다.

아파트 관리소 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내 매미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없다”며 “무작정 보호곤충인 매미를 방역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은 매미가 병해충이 아니어서 방역 작업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것은 빼곡한 아파트에 소리가 반사되면서 공명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며 “이달 말까지 매미 울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밤기온이 떨어지는 다음달부터 점차 수그러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부 평가 ‘최우수상’ 복지 창출 민·관 노력 성과

광주시 북구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광주 북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결과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 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선정된 우수 사례로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네트워크 ▲한울타리 복지공동체 ▲‘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 조성사업’ 등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창출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나도 미래소방관” 광주 남부소방서는 최근 인성고 1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를 위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남부소방서 제공

인건비 1,700만원 부풀려 챙긴 폐기물 업체 적발

광주 광산구는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인건비를 부풀려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해당 업체는 실제 근무 인원인 6명보다 1명 더 많은 7명이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광산구로부터 1,710만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2인 1조 근무 투입이라는 안전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실제 인원보다 더 지급된 인

건비를 환수하고, 안전지침을 위반한 근로 실태는 경고 조치했다.

광산구의회는 황룡강변 폐기물처리장 신설 추진과 환경미화원 협동조합 직접 고용 등으로 논란이 잦은 구 청소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윤영봉 기자

2019 찾아가는 학부모



연기자 최수종씨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한 학부모 강의에서 받은 강의료를 전액 기부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최수종씨, 학부모 교육 강의료 기부

도교육청 강연 후 기탁

전남교육청이 주최한 학부모 교육강의료를 전액 기부한 연기자 최수종씨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인 최씨는 지난 1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2019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에서 ‘엄마 아빠는 하나뿐인 내편’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 방식의 강의를 펼쳤다.

최씨는 이날 받은 강의료 전액을 “전남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전남미래교육재단에 기탁했다. 특히 그는 전남도교육청 명의로 강의료를 기탁했다. 최씨는 평소에도 기부를 실천하는 연기자로 알려져 있다.

화상 환자를 돕기 위해 부인 하희라씨와 함께 앨범을 발매하고, 봉사 관련 다큐 영화에 음성 출연과 가족의 달에 지역 순회 연극 출연 등 각종 재능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조기철 기자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급증

경찰, 소액사건도 엄정수사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인터넷 물품판매 소액사기 건수는 5,434건으로, 지난해 동기 4,131건에 비해 31.5% 대폭 늘었다.

이는 전체 사이버 범죄 사건 6,000여건 중 86.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해마다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물품 소액사기 건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명의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상 소

액범죄라도 범인 검거가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광주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소액사건 관련, 경각심을 갖고 처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용품이나 여행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려 이달말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갑’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에 대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 이용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광민 기자

“내가 먼저 째렸어”

○···자신이 지정 한 주차공간에 먼저 주차한다며 주차권을 남성이 경찰서행.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자신 이 발견한 공간에 B씨가 주차하자

짜고짜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주차 공간을 전세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먼저 주차공간을 째렸다”며 “주차를 못하게 막는 것도 모자라 주먹까지 휘둘러야 되겠느냐”며 고개를 절레 절레.

/김종찬 기자

토지 5000평 매매 지리산 관광온천 지구

- 계획관리지역, 전망 좋음
- 답 3300평, 임야 1355평, 전 330평
- 송원리조트(블루션) 옆, 현 상업 내대지 상태
- 지리산 골프장/케이블카 유치중
- 모든업종 개발가능
- 감정/시세 - 약 30억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